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욕망과 절제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기 싫을 정도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유아유괴, 명품족 납치 살해, 부녀자 납치, 패륜 등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동물적인 야수성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데 망사리지 않는다. 생명이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이라면 더더욱 소중한 자제로 취급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의 생명을 수단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 이야기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던 친척 형님이 계셨다. 이 형님은 월남전에서 몇 명의 베트남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이 형은 제대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신체는 건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 이 형에 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망령이 나타나 밤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이었다. 그

부처님은 불만족 내지 괴로움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그것은 무절제한 욕망과 분노나 저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 등이다. 카드란 물건은 쓸데는 기분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기도 좋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수입이 별무한 사람들이 급하니까, 우선 생색을 내기 위해서 혹은 무의식적인 욕구에 휘말려 마구 카드를 사용하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의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재물욕, 이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다. 여기에 저주나 분노, 판단력 미비 등이 합해진다.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바로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인간들이 지나게 되는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보통의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인 속성을 부처님은 왜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성인이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다. 동시에 무한대의 관계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에 행복과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절제와 조화란 점을 인식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인도 싸우고 육한

욕망은 갈등·분노·저주의 원천

절제와 조화로 행복한 생활 가능

러다가는 오래지 않아 실성했다는 소문이 번지더니 몇 년지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번민했던 것 같다.

그 형님은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과거 보다 훨씬 고학력 시대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혹은 출세하기 위한 교육은 있으며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은 지양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이 사는 도리를 배우지 않는 데 사람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사립잡지 못한 것을 나무란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 이란 말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살인과 유괴, 납치의 이면에는 카드란 낱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도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 보니까 편리한 점이 매우 많다는 점을 느낀다. 반면에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입이 별무인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아니 종교간에 전쟁도 일으킨다. 그렇기에 갈등과 분노와 저주를 야기하는 원천을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욕구 충족에도 분노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 성숙한 사회일 수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남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은 일으키며 평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공업중생으로서 이 사회로부터 무한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최소한의 보은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카드를 마구 발급하거나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사회적 동물이라 말한다. 불교는 이것을 연기적 관제라 말하면서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교육과정 속에서 사회의 구조와 최소한의 윤리를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공부·깨침·실천은 하나”



백운스님

(부산 미륵사 주지)

불교

는 학문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

의 종교입니다. 범어사

가 운영하는 금정불교대학

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늘 강조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학문으로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기초를 배우고 나면

직접 참선을 하고 수행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

지 이론을 조금 안다고 불교를 많이 알았네, 불교

를 깨닫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도들의

교육을 하면서 나는 한 가지 원이 생겼습니다. 재

가자들을 위한 선방을 개원해 공부할 지도하는 것

입니다.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도들이 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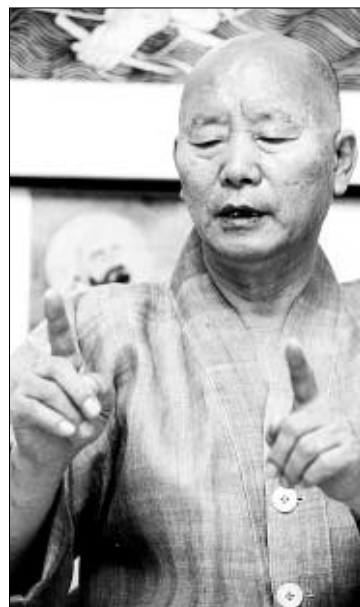
로 참선하며 실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참선에 대한 지

도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참선 공부에 아주 곁들고 있는 것



◊참선 공부의 길잡이가 되는 조사어록을 읽은 후, 정령을 갖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백운스님.

“철저한 자기수행과 함께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도

잊어서는 안될 실천 덕목”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개별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호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총재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고정의학, 제독염역학 연구 경 대한약국 (민적 당뇨 연구회) 운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국내 사주팔자 대표사이트

파일(F) 편집(E) 보기(V)

주소(A) 사주팔자닷컴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출간"
누구나 다 팔자 명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본서는 팔자명리학을 <팔자신리학>으로까지 발전시켜 놓으신 <대만>명리학계의 대가이셨던 <하 건 충>선생이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해 내셨던 고급명리학 이론을 15년간 명리학연구를 해온 저자(오산 정대균)가 우리말로 쉽게 재구성 편집한 것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4용지/620페이지):정가22만원 - 본 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팔자학은 심리(심)이며, 운명(추론) 및 개성(학)이며, 체질(학)이며, 인과법칙(학)입니다.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어떠한 사주이든 쉽게 운산을 취할 수 있는 비결 공개 (간학, 음양, 구 조 및 회운산) : 오형, 십천간, 십이지지의 창조원에서 고급추명비결 (심리분석, 공위원 분석, 변공론, 일간진입론 등)까지 총망라 : 대, 세운 해석 비결 공개.

홈페이지 : SazooPalza.com (한글주소 : '사주팔자닷컴')
전 화 : 021831-0065 핸드 폰 : 011-208-0061

烏山 八字 心理學 研究所

www.SazooPalza.com 인터넷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료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염머물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가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리 리운드) · 걸방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열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망이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이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백운스님은 "스님들이 무턱대고 신도들에게 화두를 주어서 안된다"면서 "이렇고"의 전체를 반드시 일러주고 참된의심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오〉, 대혜선사의 〈서장〉 등 조사어록을 들어 다 볼 수 있는 기초가 되면 토굴에 가든지, 선방에 가든지 중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학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방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인 듯한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참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불교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리아타(自利利他)의 가르침입니다. 자리(自利)는 자기를 이롭게 한다. 즉 자기 수행으로 지혜를 두는 것이고, 이타(利他)는 남을 이롭게 한다. 즉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복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니에 돌을 보태면 셋이다. 넷에 셋을 보태면 일곱이다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하는 게 제도가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돌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돌속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돌 바깥에 서서 이리 나오라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나오질 못하듯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돌에 들어가고 진흙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중생을 건지는 것이 제도입니다. 중생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은 복력을 쌓는 일이며 지혜와 더불어 부처님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지혜와 복력을 구축하신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바로 스스로 지혜를 쌓기 위한 자기 수행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도 빠져서는 안 될 실천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 생애 삼아승지급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했다고 했습니다. 삼아승지급이면 무한량의 시공(時空)을 말합니다. 그 무한량의 시간동안 중생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성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 수행과 헌신을 병행하는 불제자들이 많다면 어려울만 보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사하는 문중에는 한 법도 버릴 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 눈이 어두운 노비구를 위해 손수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신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을 위한 헌신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헌신의 정신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이후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중생을 제도하셨다면 본원력을 잊어서 안 된다고 일깨우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혼자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중생을 위한 헌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많은 이론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라는 한계 속에서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식(識)으로 하면 가짜입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무상정등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넘어선 생각 너머에 있는 청정각성(淸淨覺性)에 이르러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번소에 있는 꼬리달린 벌레를 보면서 더럽다고 여기듯이 천상에서 보면 인간세상이 꼭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하고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정각성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모두 가짜입니다. 불교니 깨달음이니 하고 논하지만 청정각성의 경지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인 나를 모두 부정한 그 자리에 여실히 존재하는 본래면목을 추구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incheon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청정각성의 경지 아니면

인간은 모두가 ‘가짜’

본래면목 추구하는 불자되길”

기자가 본 백운 스님

백운스님께서 주석종인 미륵사는 차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한다. 산과 절의 경계가 없는 미륵사 입구. 잘 가꾸어진 텃밭에선 싱싱한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먼 길 마다 않고 다리품을 팔아 스님을 만나면 스님이 들려주는 얘기와 법문에 수고로움을 금방 잊어버린다. 스님이 간직한 일화나 불교설화는 이미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될 만큼 무궁무진하다. 참선공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고승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한 것이〈양치는 성자〉〈진목대사〉〈부설거사〉〈연선도인〉〈오세동자〉 등으로 출판됐다. 지금도 벌어사 중창주인 〈성철스님 일대기〉를 초판해 놓은 상태고, 〈인곡선사 일대기〉를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삼권판 끝내고 하권을 남겨놓은 홍성스님, 원효선사, 초의선사, 연선도인 등은 스님에게 남겨진 숙제다. “아직도 끝을 못 낸 일이 많이 일을 마치고 가야 할 텐데, 열라대왕이 시간을 줄지 모르겠어. 허허허.” 불교사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스님의 원력이 묻어난다.

‘양치는 성자’ 등 저서 다수

“숙제 끝내고 가야할텐데...”

1934년 전남에서 태어난 스님은 백양사로 출가, 53년에 통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은 이후 71년부터 87년까지 17년 동안 벌어사, 송광사 등지에서 강사를 지내며 후학을 길러왔다. 스님은 한창 발길을 끊은 신도의 축원카드를 ‘한번쯤은 다시 오겠지’ 하는 기다림으로 앉혀지 못했다.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길 축원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스님의 자상함은 행편이 어려운 신도들에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천도재를 지내주고 49재를 지내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돈으로 정성을 올정하는 일은 아무도 마구나 짓”이라는 것이 평생 변함 없는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신도들은 집에 가서 곁과 교통이 좋은 다른 사찰에 다니다가도 행편이 어려울 때면 미륵사를 찾아 마음의 위안을 찾곤 한다. 마침, 대중전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거사를 향해, 스님은 인사를 건넸다. “왜 한동안 뜰했소? 방에 들어가서 차나 한 잔하고 가시지.” 백운 스님의 손바닥이는 이렇듯 정결다.

“텃밭에 자라는 푸성귀도 사람 손길이 많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스스로의 지혜와 복력을 두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여름 햇살 머금은 미륵사 뒷밭의 상추, 오이, 호박, 고추가 먹음직스럽다.



지록스님의 스님이야기

인암스님 (中)

내 책상 위에는 인암스님이 열반한 이듬해인 1987년에 출간된 <인암시조선(忍庵時調選)> 한 권이 놓여 있다. ‘송광사 순례 시조’란 부제를 달고 있다. <인암시조선>에 들어있는 시조는 줄잡아 300 수가 넘는다. 무박한 사투리 그대로 쓰여 있어 구수한 승승 맞춤법 깊이가 느껴진다. 맞춤법도 옛 어투가 많다. 또한 스님의 육성 녹음테이프도 많이 있다. 살아 생전에 사중 젊은 스님들이 녹음을 한 귀한 원본테이프는 지금도 송광사 도서관에 잘 보관돼 있을 것이다.

노산 이은상 시인이 송광사를 참배 왔을 때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이때 인암스님이 지은 시조 제목은 ‘고향수(柵香樹)’이다.

송광사 일주문 부근, 곧 우화각(羽化閣)과 세월각(洗月閣) 사이에는 바짝 마른 고목 기둥 같은 고향수(柵香樹) 하나가 서 있다. 이 향나무는 보조 국사의 기념 식수인데, 1200년 송광사에 오셔서 불교 중흥의 가치를 높이 세운 당시 보조 국



그림·문병성

사가 친히 심으신 나무다. 그 후 세월이 흘렀다. 1210년 3월 27일 이른 아침이었다. 보조 국사가 세속의 인연을 다 하얏을 때였다. 이때 훌륭한 제자는 스님 주위에 많았으나 함께 따라 죽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대 기록한 일이 생겼다. 잘 자라던 향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정말 놀랍구나. 이 향나무는 효자 나무여. 뛰어난 제자들이 많아요 그보다 훨씬 나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향나무는 썩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도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우뚝 서 있다.

그 사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생겼다. 보조 국사가 살던 향나무가 살고 보조 국사가 죽으면 향나무도 죽는다는 믿음이다.

“이 나무가 살아나는 날이면 보조 국사도 환생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조국사와 향나무를 하나로 보아 송

광사 대중 스님들은 이 나무를 꼭꼭히 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들 인암 스님은 고향수 안내를 할 때면 항상 하곤 하셨다. 그때가 가을이었던가, 귀한 객손이 송광사를 방문했다. 유명한 시조시인인 노산 이은상 선생과 그 일행이었다. 스님은 평소대로 송광사 안내를 하면서 간간히 자작 시조도 읊었다. 전각 하나 하나에 시조 한 수를 붙여 읊으니 흥겨운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되었다.

‘고향수’와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고 싶을 때였다. 인암 스님이 먼저 시조 한 수를 청했다. 노산 선생은 인암 스님이 얘기한 보조스님과 고향수 관련 설화를 한 수 시조에 담았다.

“어디에 계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말세 창생을 뉘 있어 건지리까
기다려 애타는 마음 일도 하마 아시리.”

노산 선생이 즉석에서 이렇게 읊자 인암스님도 솜씨를 발휘하여 예사투박 않게 화답하였다.

“살아서 푸른 일도 떨어지는 가을인데

이은상 시인과 시조로 대화

“말세 창생을 뉘 있어 건지리까”

“마른나무 앞에 산일 찾는 이마음”

마른 나무 앞에 산일 찾는 이 마음
아신 듯 모르시오니 못내 아속합니다.”

그 후로 송광사 안내를 하면서 이 시조를 읊을 때마다 신명이 나서 스님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스님의 힘과 노련미가 정짐에 와서 날치지는 듯하였고 무언가 삶의 체취랄까 향기로움, 생기발랄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조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낙(樂)이 다 모인 듯 하고 사람은 저마다 이런 크고 작은 면이 있어서 예너지를 썩듯해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결시 때에 소개된 스님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인암 스님은 사하촌(寺下村) 누수리에 태어나 열여덟에 송광사로 출가 하여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후에는 송광사 말사 주지 혹은 송광사 대종으로 지내셨다면서, “...1960년대에 송광사를 다녀간 여행객들은 어떤 승려의 위트와 해학과 정열이 넘치는 안내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수한 목소리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인암 스님의 송광사 안내는 서울의 5대 일간지가 지면을 할애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송광사〉

간(肝) 이 **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자연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삼계탕 허물을 얹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자연산 자락 계곡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깨끗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된다.

□ 다슬기 기용: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거 9가마니를 담은 뒤 원거에 물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양숙에 끝어낸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용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가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속농원)

경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무료)

1. 본 대학에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범음범패 교육을 무료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2. 교육과목 (목탁, 요령, 징, 북, 쇠송, 광가리 치는 법)

- 범음소리
- 오공인 승무춤
- 삼귀의 승무춤 일체를 여법하게 지도함

3. 선착순 : 30명

4. 수강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까지

한국 대승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국사
 범음대학 교육원장 합장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대리
055) 521-1286(직통)
055) 521-1236
011-9528-4026

지장보살인력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미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세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의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연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된 여승을 바깥을 걸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학마다 내했다. 다시 타고 다들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학을 4바퀴를 돌며 불 지든 마음을 열어나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출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현삼성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활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남기고 출원하여 사귀었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정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연의 00여 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제계약 체결하여 입주율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흥덕사에서 제재한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다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1857-4576, 017430-5008
보현 사 보현스님 합장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석씨향방의 제품은 따뜻한 기운을 발로 보내고 시원한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 **베게**
 박하, 곱창, 강황, 빙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민행지 외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98,000원

☞ **베게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서늘한 기운과 열을 받기 쉬운 복강내 모세혈관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고혈압, 저혈압, 신경질환, 우울증 등의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
 ● 오해 빼어도 베게 온도가 따뜻해지지 않고 눈머리를 맑고 상쾌하게 해준다.
 ● 안병과 감기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 학생이 배변,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 잘 되며 주부, 직장인, 고령자가 배변,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목디스크, 우울해소, 비염에 좋으며 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귀가 잘 들리고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 **산마온열보로**
 출회, 황정, 황백, 감초, 견갑, 두충, 건황, 인삼, 황연, 황금, 황기, 송인, 삼칠근, 백출, 청출의 기타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1인용 110만원, 2인용 130만원
인아 158만원

☞ **안마온열보로의 성분 효능** (태평어람,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향약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 치유력을 고조시켜 주며, 전신에 온온한 활약 함께 지압효과를 주며 온몸 구성요소의 물친근, 결린 곳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피순환및 기순환을 원활히 도와준다.
 ● 안병이 많은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병든 세포가 신선한 세포로, 난치병의 치유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편안한 수면과 수면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피로회복, 효과.
 ● 고혈압, 중풍관리, 치매 예방

대리점 모집

☎ 02) 538-7161 http:// www.hyangga.com